

북한개발소식

10

2019 October

통권 168호

| 이달의 주제 |

국내 정착 탈북민과 한국교회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개발소식

2019 October

CONTENTS

이달의 주제 :

국내 정착 탈북민과 한국교회



01

권두칼럼
국내 정착 탈북민과 한국교회



08

칼럼 1· 하광민
국내 정착 탈북민과
한국교회의 역할

13

칼럼 2· 김주한
고(故) 한성옥씨의 슬픔과
통일목회의 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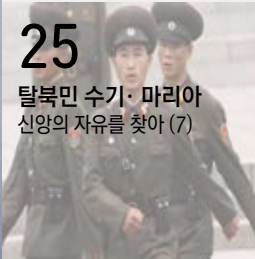
18

칼럼 3· 송신복
국내 탈북민 지원과
한국교회와 나의 책임



25

탈북민 수기·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7)



29

북한 뉴스



37

서평
마지막 계승자



39

북한 기도 제목



국내 정착 탈북민과 한국교회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점으로 탈북민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한지 20여년의 시간이 흘렀고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숫자도 3만 2천을 넘어섰다.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에 대한 지원도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왔고 사회적으로도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점진적으로나마 진행되는 듯이 보였다. 무엇보다 탈북민들을 통해 그동안 미지의 세계였던 북한 내부의 사회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교회도 탈북민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통일’이라 부르며 탈북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쓰며 통일의 비전에 대한 건강한 자극을 받아왔다.

탈북의 시작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북한에 닥쳤던 기근과 기아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탈북의 양상이 시간에 따라 바뀌기는 했지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더 나은 삶, 인간다운 삶을 찾아 나선 것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단 순 불법 월경자가 아닌 당과 수령을 배신한 범죄자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찾아 나선 이들의 탈북행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7월 있었던 탈북민 모

자 사망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모자의 추정 사망원인이 어떤 사고가 아닌 굶주림, 즉 아사가 유력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사망한 한성옥씨(42세)는 중국 교포와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이사했고, 지난해 말 아들과 돌아왔다. 남편과는 이혼했다. 장애아들을 홀로 키우며 일을 할 수 없었던 한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담당자는 이혼 확인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서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한 부모 가정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한 남편이 중국에 있는 한씨로서는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서류였다. 장애가 있었던 아들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6세 이하 아이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 10만원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아이가 자라면서 끊겼다. 아무 지원도 없는 가운데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다보니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극도의 빈곤을 맞닥뜨릴 때,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까지 몰리는 중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해쳐 나갈 방법이 없을 때의 절망감은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험난한 압록강과 두만강 물



〈고(故) 한성옥씨 모자의 추모 분향소〉

을 건넸고 국정수비대와 공안의 추격은 이겨냈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남한에서, 쫓아오는 사람도 총칼의 위협도 없는 이곳에서는 생존을 이어갈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북한과는 달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사방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풍요가 넘치는 이 나라에서 아직 젊은 모자가 아사로 운명을 달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비극적인 일은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낸다. 책상머리에서 서류를 바탕으로 한 행정 편의적인 복지 행태 속에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무관심과 비효율적인 탈북민 지원 체계 등 사건과 관련하여 탈북민 지원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정부나 관계자들의 잘못

된 복지 행정 실태 비판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통받았을 한씨 모자를 생각해 보면 정부든 민간단체든 어딘가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기댈 수 있는, 그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그런 도움의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교회가 선교적 관점에서 탈북민들을 어떻게 접촉하고 정착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통일을 앞당기고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통일의 마중물’로서 탈북민에 대한 비전과 기대도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씨의 사례를 보며 아직까지 탈북민들에게 교회가 자신들을 반겨주는 도움과 환대의 공간이 아닌 어렵고 곤란한 곳은 아

닐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사실 탈북민들이 교회를 찾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반 남한 출신 주민들보다도 신앙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다. 탈북민의 종교 경험에 관한 연구¹에 따르면 상당수의 탈북민들이 기독교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거나 부정적 감정 또는 반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탈북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도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까? 그 이유 중 하나로 북한에서 받아온 오랜 적대 교육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아왔다. 탈북자들은 비록 북한을 탈출하긴 했지만 종교는 인민을 미혹시키는 아편과 같다는 공산주의 사상과 함께 기독교를 적대국의 반혁명적 사상이며 기독교인을 적대국의 꼬나풀이라고 강조해 온 북한 정권 아래 오랜 기간 생활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교육 받았던 영향이 남아 있어 무의식적으로 교회나 기독교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적어도 거리를 두어야 할 존재, 상관해서 좋을 것이 없는 부류라고 생각하기 쉽다.

주체사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북한 사회 통제 시스템도 남한에서 들어와서도 교회를 찾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주체사상은 기독교 사상에서 하나님 대신 수령을 대체한 듯이 기독교 교리와 매우 흡

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은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을 탈출한 입장에서 오히려 북한의 사상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새로운 교리를 받아드리는데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사상적 체계의 유사성 외에도 주민 교육과 통제 시스템에 있어서도 북한의 그것과 교회의 조직 및 운영이 매우 유사하다. 북한 주민이라면 꼭 참여해야 하는 수요강연회, 금요학습, 일요 생활총화 등 기독교 예배 시스템과 유사한 통제를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교회 활동 가운데 이전 북한에서 자신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했던, 또 배신감을 느꼈던 부분들이 회상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자신들을 괴롭혔던 간부들의 권위적인 모습이 교회 목회자 및 중직자의 모습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탈북민들은 지위, 권력, 권위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교회에 다가가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체사상과 기독교를 비교의 또 다른 측면은 유사성이 있음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정반대 되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주체사상은 유물론적, 진화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에 대한 북한 사회의 이해는 매우 빈약하거나 부정적이다. 수령을 신적 존재로 떠받들도록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수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종교적인 존재가 아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내세의 구원자가 아닌 현세에서 인민 대중을 영도하는

1 이순형 외. (2015).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53-184.



〈약 170m 높이에 달하는 평양의 주체사상탑. 주체사상은 기독교와 유사성이 있음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정반대되는 사상이다.〉

위대한 지도자로서 부각되기 때문에 수령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단순 대체하여 이해시킬 수 있다는 관점은 항상 그렇지만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생각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에서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도전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체사상은 개인과 조직,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매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정신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탈북민

들이 교회를 찾았던 것은 선교현장에서의 귀한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당시 조중국경 인근을 중심으로 여러 안전가옥과 보호처소를 운영하며 탈북자들에게 지원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인으로 길러냈다.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의 생존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들여 탈출을 돕기도 하고, 북한 인권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왔다. 이러한 수고 덕분에 감사하게도 많은 탈북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남한 정착 후 처음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교회를 찾았다. 이렇듯 한국교회는 적극적인 선교를 통해 탈북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몰이해와 반감을 극복하여왔고, 남한 입국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거나 적어도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00년 중반에는 과반수가 넘는 탈북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탈북민들 중 기독교인의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8 북한 인권백서²에 따르면 2008년 조사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64.9%에 달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여 2018년에는 41.4%에 머물렀다. 여전히 가장 비율이 높은 종교이기는 하나 20%가 넘는 감소세는 분명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남한 사회 및 교회에 정착하고 귀한 믿음의 일

2 윤여상 외. (2019). 『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 서울: (사)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감시기구. 172-173.

꾼으로 성장하는 탈북민들도 있지만, 반면 교회에서 소외감과 차별감만 느끼고 실망하여 돌아선 탈북민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또 거부감 속에 교회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탈북민도 있다.

이러한 감소세의 원인은 무엇일까? 최승주³는 탈북민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크게 2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가치체계가 붕괴하면서 기독교를 새로운 가치체계로 삼고자 했지만, 이 체계 또한 경험해보니 절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교회를 떠난다. 특히 목회자나 교인들의 언행불일치와 남한 교회의 세속적인 경향을 접할 때 이들은 교회와 신앙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마저 무너지고 자포자기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탈북민들이 종교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다. 제 3국에서는 남한 입국 기회를 더 빨리 잡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종교활동에 열심으로 참여하였지만 남한 입국 이후에는 자신의 이득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적극적으로 탈북민의 관심을 이끌어냈지만 그 관심을 실제적인 신앙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방치한 교회의 무관심 또는 지혜롭지 못한 사역 행태가 아쉽다. 선교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한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덕분에 많은 탈북민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

직은 믿음의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보호처소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암기하고 훈련받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신앙 가운데 양육하고 돌볼 일선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남한 내 교회들의 탈북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다. 대부분의 교회가 탈북민을 교회의 사역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통일 선교부 등 탈북민을 위한 부서를 만들거나 사역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회로 찾아온 탈북민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양육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불리 집회와 간증 등을 통해 이벤트성으로 활용하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그간 북한 선교에 쏟은 헌신과 노력을 생각해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회로 찾아온 탈북민을 돕는 방식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 초기 탈북민 사역의 시행착오 중 하나는 재정 지원과 교회 출석을 연계한 사역 방식이었다. 매주 출석 체크를 하고 일정 금액을 받아가도록 하는 식의 사역은 탈북민들이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교회 출석의 주요 동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한 경우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더욱 심각했다.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 신앙을 돈과 결부시켜 생각하게 되었고, 유사시에 돈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 이

3 최승주, (20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 단체의 역할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2017 29(2), 173-176.



단, 사이비 단체로 쉽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돈으로 생색내는 교회의 모습에 모멸감을 느끼며 교회에 발길을 끊는 경우도 발생했다.

복음을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탈북자들도 교회 생활이 만만치만은 않다. 그간 목회적 관점에서 탈북민들이 신앙 안에서 치유받고 성장하여 앞으로의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비전이 통일에 관심있는 교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에 힘을 얻는 탈북민도 있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 부담감만 느끼는 이들도 있다. 취업난과 소득 양극화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남한 출신 사람들도 부대끼


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여러 면에서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장 살아남기조차 벅찬 것이 많은 탈북자들이 당면한 상황이다.

물론 일선 교회 입장에서 탈북민은 사역하기 편한 대상은 아닐 것이다. 그간 겪어온 삶의 궤적이 남한 출신의 성도와 상당히 다르고 신앙적 배경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사역 대상을 이해하고 섬기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배경이 없어 성경의 용어나 교회의 문화가 너무도 생소한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탈북민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내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

다. 아직도 만연한 교회 내 무의식적인 차별과 소외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또 탈북자들을 단순히 이벤트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사역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가 탈북민들이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고 설 수 있는, 그래서 회복받고 재충전하는 가운데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대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는 본을 보이며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이제 막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이들

이 성숙한 신앙인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수년의 시간은 필요하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 마음밭이 기경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더 많은 탈북민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고단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날 때 자연스럽게 탈북민 사회에서 교회가 다시금 신뢰를 얻고 교회로 발걸음 옮기기를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성옥씨 모자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함께하는 곳으로 여기고 거리낌 없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정착 탈북민과 한국교회의 역할

하 광 민 (생명나래교회, 기독교 통일전략 연구센터장)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떠날랍니다”

문자로 통보해 온 고별이었다. 교회 개척시기부터 함께 해 온 탈북민 가정이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다. 한국교회가 탈북민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던 사람으로서 정착 본 교회에 정착한 탈북민 가정이 떠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탈북민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글은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 지에 대한 기존의 논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적어보았다. 왜냐하면 탈북민 사역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 하나는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교회 내에서는 여전히 탈북민에 관한 정착양육 사역은 별 진전이 없고 확산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와서 정착한 탈북민 그룹은 신앙성장과 함께 남한 내 정착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염두에 두고 풀어보고자 한다.

탈북민의 시작, 통일은 준비되다

90년 중반 북한에 발생했던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 주민은 대량 아사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북중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대량 탈북하게 되었다. 북한 주민이 아사한 것은 북한 체제의 허약함이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였다. 김일성 일가의 우상숭배로 인해 교회를 핏박하고 성도들을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기도 하다. 처음으로 중국으로 넘어 온 탈북자들은 북한 이외의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되었고 당시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을 접촉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이들은 북한으로 들어가 순교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른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 발생 초기부터 가장 빠르게 대응한 그룹은 한국교회였다. 당시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이제 막 깨어나기



〈일러스트레이션: Adolfo Arranz (South China Morning Post)〉

시작하는 중국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이 한국 선교사들과 연결되어 탈북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초기 탈북루트를 선교사들이 개척하여 한국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한국행으로 오는 탈북자들의 루트는 기독교 루트라고 해도 무방하며 현재도 이 기독교 탈북 루트를 대부분 이용해서 오고 있다. 그것의 방증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간 정착훈련을 하는 하나원의 종교 생활에서 나타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4대 종교의식 가운데 기독교 비율이 전체 60%에 달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탈북루트와 그 과정에서의 연계 신앙훈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탈북민의 출현과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지대함을 알 수 있으며 통일을 위한 사람의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민들의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북한에 대한 관념적 이해를 넘어서 실제적이며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하

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갈라진 민족과 그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체제의 통일을 넘어서 사람의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게 해 주었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다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정착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 이들을 맞이했다. 그 와중에 서로간에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시간이 있었다. 그것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문화와 정서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남북의 언어가 다르며 억양이 다르다. 언어의 미묘한 차이는 정서의 차이를 낳게 되고 정서적 교감이 쉽지 않게 되자 탈북민들은 한국 내에서도 고립된 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한국에서도 섬 아닌 섬지대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왜 이들이 섬에서 고립되는 것일까? 그것은 양자간의 이해의 부족이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민의 숫자는 32,000여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로 다시 나가서 실제로는 3만 명 미만의 탈북민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사람이 탈북민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으나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 볼 기회가 많지 않다.

또한 탈북민의 입장에서 남한사람과의 의미 있는 접촉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남한 사람들을 대학생들이나 직장생활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캠퍼스에서의 만남에서 탈북민들이 남한 대학생들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 직장에서의 만남 역시 사무적인 만남이어서 깊은 내면을 열어보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렇게 지내다 보면 탈북민들은 탈북민공동체의 네트워크에서만 머물게 되고, 정보 공유의 한계도 뚜렷하다. 그러다 보니 남한에 가족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탈북민 공동체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연결되지 못한 상태로 지내면서 고독하게 지내게 되는 탈북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2009년 8월에 세상에 알려진 탈북모자의 아사 사건도 비슷한 맥락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죽음이 2달 뒤에나 알려진 것으로 보아 그들은 한국사회와 연결점도 없었고, 탈북민 공동체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교회, 문을 더 활짝 열이라

탈북민들의 한국정착의 현실이 계토화(섬에 사는 현상) 현상을 띄고 있지만 이들을 가

장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결국 교회 밖에 없다. 이들의 출현과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도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크며, 한국 사회에서도 이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어 하나됨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역시 교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믿는 공동체이며(엡 2:15),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마 5:9).

2014년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만1765명 가운데 현재 종교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응답이 34.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교(58.5%) 불교(3.1%) 천주교(2.9%) 순이었다. 이는 탈북민들이 교회를 가장 신뢰할만한 기관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교회는 탈북민들을 얼마큼 받아들이고 있는가?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북한부서를 설치한 교회는 150여개 정도이다. 한국의 8만 5천 여개의 교회 중에 150개 정도만이 탈북민을 받아들이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교회의 수에 비해 너무나 적은 숫자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한국 성도들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사는 서울의 강서 지역에서는 탈북민 부서를 운영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대신 탈북민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운영하는 교회는 강서지역에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한교회는 의외로 내 지역으

로 북에서 이사온 탈북민 이웃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고 배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넘비 현상(자기 지역 이기주의)이 만연한데 탈북민들이 사는 지역이 임대아파트여서 지역적으로 더욱 더 차별을 받는 것이다. 학군과 집값을 따지면서 없는 이들을 업신여기는 문화가 탈북민을 대할 때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과감하게 이런 세상의 기준을 뒤엎을 수 있어야 한다. 탈북민의 발생과 한국으로의 유입과정을 통해 드러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고 이들을 겸손히 섬기고 따뜻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부서를 설치하고 준비된 남한 봉사자들을 훈련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통일선교 사역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탈북민들이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북민들은 기본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교회에 찾아온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관계적으로 위축된 상태이다. 남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을 오픈하고 관계를 맺어나가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경우에 교회는 따뜻하게 이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롬 12:15)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더 많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의식부터 변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면 통일은 요원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통일을 위한 사람의 통합으로 통일 이전에 북한 주민을 교회로 보내어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진다면 이 분단된 민족의 현실에서 한국교회의 사명을 더 이상 논할 수 없지 않을까?

한국교회의 목회자들로부터 통일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탈북민의 출현과 그 안에 기독교적 배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에 주시는 메시지가 엄연히 존재함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한겨레)〉

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교회가 통일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직시하고 먼저 이 땅에 보내준 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들을 맞이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 그것은 개교회에서나 또는 교회 연합회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들어온 탈북민 그리스도인들, 당신들도 앞장서라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향하여 탈북민 사역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것은 탈북민의 국내 입국과 한국 정착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지만, 한국에 먼저 들어온 탈북민들, 즉 10년 이상 된 탈북민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각 교회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그들은 한국교회의 자양분 위에서 정착하고 신앙을 전수받았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 어떤 이들은 10년을 넘어 20년이 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더욱 정착하는 탈북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국성도들과 함께 파트너로 동역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후원을 받는 그룹으로 머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선교의 네 단계를 4P라고 한다.

1) 씨 뿌리기(Planting)


2) 돌보기 (Parenting)

3) 동역하기(Partner)

4) 후원하기(Patron)

탈북민의 신앙의 발전단계도 이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 계속해서 씨 뿌리면서 돌보는 과정도 지속되지만 지금은 제 3시기인 동역하기까지는 발전해 오고 있다. 만일 계속해서 씨만 뿌리는 과정이거나 돌보는 과정에만 머문다면 한국교회의 탈북민 사역은 암울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동역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또한 그렇게 발전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이 사역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초기 신앙 양육시부터 돌보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동역자로 세워질 것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자립적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지치지 않고 통일사역과 통합사역에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이제 초기 탈북민 사역을 했던 많은 교회들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20년간 씨를 뿌렸는데 얼마큼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묻고 있다. 우리도 과연 따라 할 수 있는 사역인지를 묻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가 눈물로 뿌렸던 초기 탈북민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길이 맞다고, 이 길로 가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변했으니 한국교회여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씨앗을 뿌려 달라고... 

고(故) 한성옥씨의 슬픔과 통일목회의 반성

김 주 한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대표)

1. 고(故) 한성옥씨의 슬픔과 탈북민 삶의 사각지대

얼마 전 우리는 고(故) 한성옥씨의 죽음에 대한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 소식은 탈북민 사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탈북민들은 뒤늦게 남아 분향소를 만들고 추모하고, 또 정부와 향후 탈북민 정책의 보안을 위한 협상도 하며 슬픔의 도가니 속에 잠겨 있었다.

고(故) 한성옥씨의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준 부분은 그가 굶어 죽었다는 사실에 있다. 북한도 아닌 한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2009년에 입국한 고(故) 한성옥씨는 한국에 온지 10년이 다 되어오는 사람이었다. 10년이면 어느 정도 한국 사회 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여러 고난들을 극복하여 삶의 터전도 잡았을 만도 했지만, 오히려 그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고, 결국 어린 아들과 함께 극단의 결과를 맞닥뜨리고 말았다.

고(故) 한성옥씨에 대한 가슴 아픈 사실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다른 비보가 언론을 통하

여 우리에게 들려왔다. 안양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던 45세 탈북민 김모씨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뉴스였다. 2005년에 입국한 김모씨도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불을 끝까지 지피지 못하고 세상과 등지는 선택을 했다.

현재 한국사회는 탈북민 3만 3천명 시대지만 삶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탈북민들이 단지 고(故) 한성옥씨와 김모씨 분일까? 2013년 10월 13일자 연합뉴스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2만 5천명 중 26명이 자살하고, 이 밖에 거주지 불분명이나 수감 등 사유



〈금번 탈북민 모자 사망 관련 국민일보 삽화〉

로 인한 행방불명 796명, 이민자 51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탈북민들이 자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숫자가 이것보다 많다고 말하고 있고, 또 지금은 당시에 비해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난 시점이다.

우리는 얼마 전에 추석 명절도 지냈지만 에스더탈북민센터의 증언에 의하면 지난해 추석에만 해도 자살로 세상을 떠난 탈북민은 28명이라고 한다. 또한 노동자연대의 2018년 1월 12일자 칼럼에도 2016년 탈북민 자살률은 한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16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국가인데 한국 내에서도 탈북민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과 통일시대에 관심이 있는 한국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 그리고 언론 매체들은 탈북민들을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현상들은 그 마중물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

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슈게이트의 2019년 8월 19일자 DM 칼럼은 이러한 책임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인권유린을 당하고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곳을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어 찾아온 동포가 이 나라에서 굶어 죽었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그 엄마인가? 굶어 죽은지 2달이나 방치한 비정한 이웃인가? 정권의 중심 수도 서울에서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를 누가 굶어 죽게 했는가? ...”

2. 누구의 책임인가? 교회는?

저는 오늘 기독교인으로써, 그리고 탈북민 목회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 싶다. 교회는, 그리고 통일 목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故)한성옥씨의 사건과 한국사회에 나와서 모진 결단을 하는 수 많은 탈북민들, 그리고 탈북민



〈고(故) 한성옥씨와 아들 김동진 군의 영정〉

사각지대 현상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 속에 저는 고(故) 한성옥씨의 추모현장에 다녀오면서 현장에서 봉사하는 탈북민 여성들로부터 아픈 현실에 대한 하소연의 소리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죄송하다는 답변과 함께 깊은 사과를 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교회와 탈북민 목회의 현장에 서있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탈북민들을 우리 곁에 가족으로 남아있게 못하고, 이질성을 느끼게 하며 그들이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고(故) 한성옥씨와 같은 슬픈 현실들은 탈북민들이 우리 곁을 떠나서 고립된 모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탈북민들은 왜 우리 곁을 떠나가되는가?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보아야 될 깊은 성찰이라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문제는 통일목회, 특히 탈북민 목회현장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이라는데 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구원에 있다. 그러나 많은 현실에서 교회는,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탈북민 목회 현장에서는 영혼들이 신음하는 고통소리 보다는 사역자들의 입지 싸움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이것이 탈북민들이 우리 곁을 떠는 첫 번째 현실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목회현장의 민낯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나는 방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생각했던 목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사정은 달랐다. 현실 탈북



민목회 가운데서 내가 쏟는 에너지를 100이라 쳤을 때 그 중에서 90프로는 교회 중진들과의 마찰 속에서 소모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겨우 10프로 정도만이 탈북민 영혼들을 돌보는데 돌려졌다. 그때 나는 이것이 목회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목회자의 대열에 붙어 있다.

우리가 싸울 때 탈북민들은 우리 곁을 떠나갔다. 우리들의 행실을 비난하면서 떠나가던 탈북민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래서 불신자로,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 신천지로, 이단으로 떠가간 사람들이 얼마인가? 이제 그들의 걸음을 다시 돌려 세우는 데는 얼마나 더한 수고가 더 들어야 할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어디 그 뿐인가? 탈북민 영혼들을 돌보는데 조건 없는 섬김보다 내 교회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더 중요성을 두며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

는 강박한 모습들 속에서, 주님의 일들은 묻혀져 가고 있다. 탈북민 영혼들이 고통에서 신을 할 때 우리는 앉아서 헤게모니 싸움만 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한국교회의 탈북민 목회 방법론이 주로 잘 다듬어진 자기 옷을 탈북민에게 입히려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탈북민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탈북민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의 생활 방법과 풍습들을 받아들이고 새 옷을 입어야만 살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생활방식의 구현의 현장이 아닌, 어떤 교회문화의 옷을 덧입혀 주는 현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실천되는 거룩한 장소이다. 그러나 교회에서조차도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히려고 드는 것을 탈북민 사역의 본질로 착각하는 현상들이 많다는 것이다.

탈북민 목회에 대하여 깨어 있고, 열린 교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씩 극복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또 새롭게 시작하려는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교회에 찾아 갔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느끼는 이질적인 것은 교회의 언어와 설교들이다. 사도행전 강해를 몇 년째 주일마다 하는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한 탈북민이

“.... 몇 주째 목사님이 바울, 바울... 하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안타까웠다. 문화 충격, 정체성 혼란, 외로움, 고향의 혈육들에 대한 걱정, 삶의 아무런 기반이 없는 이 사회에서 장래에 대한 캄캄함을 위로해줄 말씀의 소리가 필요한데 교회에서 탈북민들은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탈북민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여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힘들더라도 배워야 되고, 입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입장들만 돌아왔고 이것이 탈북민 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여기가 강압적인 북한의 조직 사회도 아니고, 그래서 탈북민들은 한국 교회를 떠난다. 교회가 교회의 옷을 강요했을 때 탈북민들은 우리의 곁을 떠났고, 더 외로움의 골목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 외 여러 요인들이 많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탈북민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한국교회 가운데는 탈북민들이 안고 있는 짐들을 함께 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언론에 다 공개되어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故) 한성옥씨의 삶의 짐은 누가 보아도 가볍다고 말할 수 없다. 그의 삶의 전 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고(故) 한성옥씨 자신도 장애를 가진 아들의 짐을 감당하기 힘들어 극단적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탈북민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 탈북민들의 삶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특히 하나원에서 새로 나온 탈북민들을 돌보는 일은

다운중후군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은 수고가 든다...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북한에는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5만 공수가 든다는 말이 있다. 1공수는 북한의 근로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서 돈 대신 받는 일종의 <어음>이다. 한사람이 하루에 1공수를 받으면 5만공수를 모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인가? 계산이 안 간다. 그만큼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노력이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되겠다. 그런데 하나원에서 새로 나온 탈북민 한 사람을 세우는 노력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노력에다 플러스 다운중후군 장애까지 겹친 수고가 든다는 말이 되겠다.

통일 한국 시대에도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이 안고 있는 영적, 육체적 짐을 우리가 함께 질 수 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것은 장래의 일이지만 현재 우리 앞에 있는 탈북민들의 짐을 함께 지는 문제도 감당이 안되고 있다. 그래도 일부의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 탈북민들과 어울리려고 찾아오지만 얼마 못 견디고 <앗! 뜨거워>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 탈북민들과 함께 덩굴며, 함께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짐을 져주며 살아가는 이웃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영역은 탈북민들의 삶의 영역과 나뉘어져 있다.

3. 고(故) 한성옥씨의 슬픔을 돌아보며

고(故) 한성옥씨의 슬픔을 통하여 우리는 저들을 소외의 자리로 내몬 것이 우리들 자신들이 아닌가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저들을 궁지로 내몰았습니다”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우리의 통일 목회지가 소외된 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하기 위하여 통일 목회의 현장이 헤게모니 싸움의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 본질의 경전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우월문화의 옷을 입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통일 목회에서 본질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기초라고 생각된다. 

국내 탈북민 지원과 한국교회와 나의 책임

송 신 복 (하나비전교회)

1. 서론

지난 7월 31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42세 탈북여성 한성옥 자매가 6세 아들 김동진과 함께 숨진채 발견되었다. 한씨 모자는 발견 당시 사망한지 두 달 정도 지난 상태였으며 시신도 상당히 부패되어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만 남아 있고 마지막 3,858원을 인출한 통장에는 잔액이 한 푼도 없었다. 아들은 질병에 걸려 있었고 아동수당과 육아수당 20만원을 받다가 아들이 6살이 되면서 육아수당만 10만원을 받았다. 구청에 어려운 사정을 말했으나 거절을 당하고 결국 아사하고 만 것이다.

한성옥자매는 2009년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으며 정부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증도 따고 열심히 노력해 9개월 만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났다. 중국 조선족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고 경남 통영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남편과 함께 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이혼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귀국했다. 매월 수입은 양육수당 10만

원 밖에 없었다. 휴대전화기도 없고 집세도 1년 이상 밀려 있었다. 경찰은 모자가 타살이나 자살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우리나라에는 쌀이 남아돌아 남는 쌀을 보관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북한에도 쌀을 보냈다. 쌀 재고처리를 고민하고 있는 나라의 수도 서울에서 모자가 굶어 죽었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행정당국의 복지 시스템의 허점이 비극을 만든 것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두어 말하고 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을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 찾아온 동포가 이 나라에서 굶어 죽었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고 말하며 현 정부 탓을 하기도 하며 탈북민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시민 애도 장례를 치렀다.

필자도 탈북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두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마음 아프고 가슴 저려 며칠을 뜬눈으로 보냈다.

350만의 아사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죽음의 수많은 고비를 넘어 사람살만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쌀 재고 처리를 고민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탈북민 엄마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다니! 너무나 내가 살아있는 며칠이 힘들었다. 한성옥 모자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 수많은 질문해보며 성경적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하여 필자는 이 문제를 기독교인로서, 목회자로서, 성경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본론의 서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한성옥 모자의 죽음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 나 역시 목회자로서 책임이 없는가? 하고 생각해보았을 때 이것은 사회의 책임도 있지만 교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과 나

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을 위해 많은 사역을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을 몰랐을까? 이며 한성옥 자매에게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쳐졌을까? 이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중국에 친척이나 지인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중국교회의 십자를 찾아가라”는 말들을 조심히 한다. 그러면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준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에 친척 없이 순 식량구입을 위해 찾아가거나 배고파 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찾아 교회로 들어가서 식량을 구입하였고 며칠, 몇 년을 있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성경공부도 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 교회에서 탈북민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오면 수많은 돌봐주었고 그 때문에 공안국에 붙잡혀 벌금을 내기도 하고 감옥도 간 중국 사역자들이 많았으며, 중국 장백에서 탈북민들을 돕던



한충렬 목사는 북한보위부에 피살되었다.

필자 역시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 집사님의 집에서 하숙 3년을 하면서 살았는데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3년동안 월세도 안 받고 공짜 밥을 먹여주셨고, 덕분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북한에 보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분들을 통하여 신앙의 본을 배웠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중국교회 생활이었고 이 글을 쓰면서 다시한번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걷게 해준 중국조선족 교회에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한성옥 자매가 왜 그렇게 수중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교회에 찾아가지 않았을까? 교회에 가면 그래도 도와주겠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컸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나 탈북민들에게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더 많지 않는가? 하는 아픔이 가슴속에 밀려든다. 또한 교회 사람들중 누구라도 성육이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고 언니 오빠가 되어주었더라면, 우리 성육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는데, 하는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세계적으로 제일 큰 대형교회가 있고 새벽기도의 전통을 자랑하며, 세계 선교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섭섭해할 정도의 선교대국을 자랑하며, 십자가가 밤 야경에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대한민국에서 탈북민 모자에게 줄 쌀이 없어서 굶어죽게 하다니! 이것은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노라고 생각해보았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만난 나그네를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들 중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은 나그네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간다. 그리고 그 상처를 부드럽게 하는 기름과 소독하는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옷을 찢어 싸매준다.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 밤새도록 간호해 준다. 그 다음 날, 노동자의 이틀 분 임금에 해당되는 두 데나리온을 여관주인에게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사후처리까지 부탁한다. 그야말로 완벽한 헌신이요, 봉사이며 적당한 선에서 끝내지 않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결국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스라엘의 엘리트 종교인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비정한 행위와 유대인과 원수관계였던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비유 속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엘리트 종교인들의 위선과 이기심과 비정함을 폭로하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강도만난 사람의 비유는 율법에 대한 지식은 풍부해서 알기는 너무나 잘 하는데, 그 아는 바를 실천하지 못하는 종교 지식인들의 지행불일치(知行不一致)를 고발하신다. 비유를 듣는 율법사를 비롯한 모든 엘리트 종교인들의 위선과 이기심과 냉혹성을 공박(攻駁)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며 다른 한 편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웃 사랑을 제한시키는 그 어떤 장애물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결단코 인종이나 종교, 성(性), 지위, 계급 등에 의해서, 나뉘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다 경악하고, 분



개했을 것이다.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던 이가 주인공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성옥이에게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이 비유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있을지 몰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었다. 예수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성옥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한국교회여, 탈북민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한국교회여!” 하는 부르심에는 나도 있다. 상처를 부드럽게 하는 기름과 소독하는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옷을 찢어 싸매주며,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 밤새도록 간호해 주며 다음 날, 노동자의 이틀 분 임금에 해당되는 두 데나리온을 여관주인에게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사후처리까지 부탁하는 그런 사마리아인같은 사람들이 없어서 성옥이

가 그렇게 되었다고 책망하고 계신다. 내가 그런 사마리아인이 못되어 성옥이가 그렇게 되었다고 나를 책망하고 계신다.

그렇다. 주님은 정확히 아신다. 탈북민들에 대하여 가장 잘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탈북민 목회자인 내가 그 한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못되어 성옥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며 이 글을 쓰게 하시며, 이 글을 쓰면서라도 목회자로서의 뒤를 돌아보고 탈북민들을 돌보라고, 한국교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었다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못된 것이라는 귀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를 탈북민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게 하시며, 김정은 강도를 만나서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를 안고 걷은

멸절한 것 같지만 마음이 피투성이 되어 찾아 온 탈북민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찾아가 선행을 베풀라고 하신다.

2) 한국교회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때 성육이같이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서고 힘을 얻으며 생명을 되찾는다.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성육이는 중국에 가면 살수 있다는 소망으로 탈북했고, 또 중국의 어려운 고비에서도 한국에 가면 살수 있다는 소망으로 한국에 왔는데 인간적 기대의 소망이 끊어지면서, 자기가 없으면 장애인인 동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들과 함께 누구에게도 손내밀지 않고 세상을 하직했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소망은 참 살아갈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인데 성육이는 그것을 인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가슴 아프게 우리 곁을 떠났다.

성육이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과 사회는 절대로 인간에게 참 소망을 줄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말해주고 있다.

3. 결론

1) 한국교회는 탈북민 목회자들이 탈북민 선교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잘 연구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탈북민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에 탈북민 선교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잘 연구하여 알려줄 사

명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현장이 그것을 연구하여 체계화할 수 있는 시간에 그들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 하면 탈북민 사역자들의 목회현장에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지 않거나 없기 때문에 목회자 자신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정착도우미 역할부터 시작하여, 북한과 중국의 가족을 데려오는 문제 등 탈북민들의 여러 가지 도움의 역할을 함께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현장을 돌아보며 그들이 기도와 말씀준비, 탈북민 선교의 방향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선한 사마리아인같은 목사님이 나서야 하며, 그들의 사역현장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

2) 한국교회에 한 교회가 한 명이상의 탈북민들을 품고 친구가 되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현재 탈북민들의 숫자가 3만 2천명정도인데 한국교회는 그 숫자보다 훨씬 많다.

한국교회를 보면 북한선교의 사명을 가진 목사님이 담임목회를 해야 탈북민을 품고, 그렇지 않으면 탈북민선교나 북한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이론들이 있다.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중 독립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라면, 목회자라면 북한선교를 해야 하며 북한선교훈련으로 보내신 탈북민선교는 북한선교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이다.

대한민국의 한 교회, 한 교회가 탈북민 한사람이상 품고 기도하며 친구가 되어주며,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상처를 부드럽게 하는 기쁨역할, 소독하는 포도주역할, 자신의 옷을 찢어 싸매주는 역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 밤새도록 간호해 주는 역할, 다음날 노동자의 이틀 분 임금에 해당되는 두 데나리온을 여관주인에게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사후처리까지 부탁하는 그런 사마리아인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사랑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 탈북민들이 감동되어야 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장 찾고 싶은 곳이 교회여야 한다.

3) 한국교회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과 지

방자치제와 함께 협력하여 탈북민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부지런히 탈북민사역을 하여 한국사회가 탈북민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어야 하며 정착시스템을 더 잘 만들어 가도록 한국사회에 조언을 주며, 리드해 가야 한다.

한성옥 모자가 굶어 죽은 뒷면에는 주민센터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중국에 가서 이혼서류를 가져오라고 한 것 부터가 탈북민의 생활을 모르고 한 것이다. 탈북민은 중국에 가서 이혼서류를 해오려면 목숨을 내놓을 때도 있다. 왜냐하면 폭행하는 남편에게 이혼서류 해달라고 중국에 가면 신변이 위험하며, 그렇다고 중국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으며, 또한 중국에 수많이 나와 있는 북한보위




부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이 악감으로 신고하면 강제 납치되어 북한으로 북송된다는 것을 동사무소 직원이 몰랐다는 것이다. 이 자체가 중국이 탈북민들의 인권과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교육을 사전에 통일부나 남북하나재단에서 남한의 전체 동사무소직원들에 대하여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필자는 탈북민 목회자로서 탈북민들에 대하여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한 사전대책에 대하여 통일부나 남북하나재단에 알려주지 못했다는 자책을 수없이 해보았다.

4) 또한 탈북민들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경의 진리와 그분을 의지

하여 살아가는 법을 알고 믿고 따르도록 기도하며 권면하며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인간적인 기대의 유토피아는 없음을 깨닫고 알고 천국 소망이 사람을 살리고, 일어서고, 오늘의 고난을 버텨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그 어떤 대가를 들어서라도 탈북민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여야 하며 그들을 잘 키워 북한선교의 앞장에 세워야 할 크고도 막중한 사명이 있다. 그것을 하려면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먼저 되어야 하며 그 수고를 한국교회는 반드시 감당해야 하며, 그것이 한국교회의 회복의 길이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7)

마리아



〈북한의 보안원 (국민일보 자료사진)〉

보고 있어도 그리운 어머니와 남편, 작은아들을 뒤로한 채 나는 또다시 이동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내 소유로 이고 있던 짐가방은 남편에게 주었다. 그동안의 마음의 짐도 왠지 남편과 맞드는 느낌이 들었다. 아쉬운 마음만 남기고 친정집에서 나와 서비차를 타고 보안서 감찰과로 이송되었다.

감찰과 대기실의 죄인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왔고 나만 중국에서 온 사람이었다. 대기실에서 장염으로 인한 고열로 끙끙 앓았다. 이런 나의 모습이 보기 딱했던지, 어떤 여자 죄인이 나에게로 다가와 안마를 해주기 시작했다. 살도 근육도 없이 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몸통 어리에 잡히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나의 몸에서 중요한 혈을 짚어내며 안

마를 하는 듯했다. 알고 보니 예전에 군 복무를 하면서 간호사로 일했었던단다. 안마가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밤은 그나마 고통이 덜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다.

지역 분주소 담당 보안원이 나를 데리러 왔다. 흘러내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보안원이 끌고 온 자전거 뒤에 올라탔다. 여름,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한두 시간가량 자전거로 달려가 분주소¹에 도착했다. 분주소 소장은 나를 보자마자 온갖 욕을 해댔다. 그에게 나는 조국을 배반하고 중국에 도망쳤다가 잡혀 들어온 ‘미친 간나’였다. 그가 악쓰는 질문에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내 말을 잘 못 알아먹고 조선말도 까먹은 년”이라며 더 노발대발했다. “네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대한 반역죄를 짓고도 이 푸른 대지를 두 발로 걸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 위대한 수령의 동상 앞에 뒹뒹이 다닐 수가 있나.” 온갖 어마어마한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나는 무서워하며 그저 고개를 꼭 숙이고 서 있기만 하였다.

소장은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서는 나를 또 다른 대기실로 이동시켰다. 그곳에서는 다른

¹ 남한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사회 안전 기관(현 인민보안성)의 하부 말단 단위의 하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양반 다리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 다시금 구류장에서 했던 것처럼 부동자세를 취했다. 취침 시간이 다 되어 불을 껐지마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림던 고향에 왔으나 나에게 차려진 것은 서늘하고도 무서운 철창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기실에서 빠져나와 내가 감금될 방에 처넣어졌다. 새로운 감방에서도 온종일 부동자세를 취하니 날이 어느덧 기울었다. 그곳은 초저녁에도 어두컴컴하였다. 전기가 없는 열악한 이곳을 밝게 비추어줄 촛불은 안에는 없었고 바깥에서 누군가 가져다주어야만 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초를 구하지 못했고, 해가 진 감방은 영락없는 어둠뿐이었다. 이튿날 보안원이 우리 감방에 찾아왔을 때 어둠 어둠한 방안을 보고는 “XXX 마누라가 누구냐! 이 방에는 초도 없냐!”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새로 온 죄수의 얼굴을 보기 위해 그 보안원이 손수 자기 방에서부터 초를 가져와서 내 코앞에 불을 갖다 대었다. 촛불로 비추어본 나의 사지는 영락없는 성냥개비처럼 뼈 빠 말라 있었다. 새삼 나의 손발이 참 불쌍했다. 매일 달고 살던 몸뚱어리인데도 이렇게 돌아볼 여지가 없었다. 이름이 불린 나는 젓 먹던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다. 며칠 전에 보았던 그리운 남편이 그곳에서 있었다. 내가 있는 곳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서든 도시락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다. 차마 손을 맞붙잡지도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남편을 다시 떠나보내고는 차가운 감방으로 다시 들

어왔다.

어제의 정경던 면회도 무색하게 나의 장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다. 약은 커녕 제대로 된 보식도 기대할 수 없어 매일같이 피똥을 썼다. 이 와중에 노동에도 투입돼서 고통은 날로 더해갔으나, 나의 온 감각은 온갖 욕과 함께 무더져만 가고, 웬만한 통증은 이제는 느낄 새도 없이 일만 했다. 오늘의 노동은 분주소 우물의 지붕을 짓는 일이었다. “너네 다 나와!” 이 보안원의 한 마디에 남녀 구분 없이 죄인들이 다 동원되어 노동을 개시하였다. 이곳에서 나는 중국에서 잡혀와 예심을 위해 구류 중이지마는 다른 죄수들은 ‘150일 전투’ 등을 포함한 각종 국가 노동 동원에 불참하여 끌려온 근무지 이탈자들, 혹은 가벼운 사기범이었다. 나는 장염에 시달려 골골했으나 이곳에서만큼은 나라를 배반한 대역 죄인이었으므로 그런 사정을 호소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일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영양 결핍과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다 없어지고 걷는 것조차 힘든 이 상황이었지만 나는 젊은 시절 돌격대에서의 노동했던 가닥이 있어서인지 열이 나서 벌벌 떨면서도 능숙한 솜씨로 모르타르를



〈2009년 발행된 북한의 ‘150일 전투’ 선전 포스터.〉

이겼다. 곧잘 일하는 나의 모습을 본 분주소 소장은 본인의 사무실 창문 앞에서 나를 보며 일요령이 있다고 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모두 개인 부담이었다. 덮고 잘 담요, 생필품을 비롯하여 하루 세끼 먹을 음식까지 소에서 제공해주는 것 하나 없이 모두 바깥에서 가족이 가져다주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했고, 그마저도 형편이 안되는 죄수들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려야만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해결책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감사하게도 남편이 그 무더운 여름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자전거를 타고 와서는 하루 세끼를 해결할 도시락을 챙겨주었고, 나는 그 도시락에 아침, 점심, 저녁의 모든 영양분을 의지하며 살았다. 보관 설비는 커녕 기본적인 가구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이 비좁은 감방 한구석에 그 귀한 도시락을 압전히 놓아두었다가 아침 노동이 끝나면 손을 씻고 들어와 먹고, 오후 노동이 끝나고 들어와 나머지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마지막 도시락을 까먹었다. 밥을 먹는데 옆에서 먹을 것 없이 굶는 죄수들이 보였다. 나에게도 적은 양이었지만 딱한 마음에 한 줌도 안 되는 밥을 함께 나눠 먹었다. 그때 도시락을 나눠먹은 죄수들 중 한 명은 풀려난 뒤에도 종종 면회를 와서 자기가 손수 썬 도시락을 가져다주며 ‘그때 주었던 도시락 이렇게 값네.’ 하였다.

다른 때와 같이 골골대며 도시락을 나눠 먹던 어느 날, 담당 형사가 나를 불러내었다. 심문이 시작된 것이다. 매일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직원에게 불려가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

지’에 대해 쓰고, 쓰고, 또 썼다. 날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쓰게 해서 거짓말을 판별하고 모든 사항이 숨김없이 드러나도록 하는 전략이다. 처음 국경 보위부 심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그대로 다시 진술해야 하는데 기억력이 제한되다 보니 틀린 부분이 나오고 진술문을 계속 다시 쓰게 되었다. 한 일곱 번쯤 썼을까? 이제는 몸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도 쥐가 날 지경이었다. 초심 동안에는 그렇게 진술문을 쓰다가 담당 형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라고 하면 방으로 돌아가 청소를 했다. 심문하는 담당 형사는 노골적으로 “너는 중국에서 가져온 게 뭐가 있니.” 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진짜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바칠 돈이 없었다. 조국을 배반하고 중국으로 도망간 년이 돈조차 갖다 바치지 않으니 나는 영락없이 미운 털만 박힐 뿐이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면회를 오는데 팔다리가 모두 까져있었다. 어떻게 된 일냐고 물어보니 야밤에 강도는 만났단다. 분주소와 우리 집 사이에 있는 무인지경에서 군인들이 종종 밤에 나와 강도질을 하곤 하는데 전날 밤에는 면회를 왔다가 집에 가면서 운 나

쁘게 그들에게 당한 것이다. 군인들은 길 사이에 안 보이게 끈을 설치해서 밧을 만들었고, 남편이 자전거를 타가가 그만 그 밧에 걸려 넘어졌다. 서너 명의 군인들이 깜깜한 밤에 남편에게 다가오는데, 남편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두 손에 두 돌을 집어 들고는 “덤비겠으면 덤벼라. 죽을 각오 돼 있다.” 하며 발악을 했다고 한다. 아마 감옥에 있는 내가 생각나서 더 담대했던 것 같았다고 했다. 강경한 남편의 모습을 본 군인들은 순간 놀랐는지 자전거도 안 빼앗고 그냥 보내주었다고 한다. 그런 어려움을 나를 위해 매일같이 감수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날씨가 유난히 더웠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 따라 남편의 면회가 늦어졌다. 알고 보니 마침 그날 남편이 엄마 얼굴 보여주겠다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심보가 고약한 간부가 남편과 딸 내미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땡벌에 세워놔던 것이다. 중천에 있던 해가 서서히 떨어지는 오후 즈음 면회가 허락되어 나가보니 남편과 딸아이가 땀에 젖어 앉아있었다. 딸과의 재회는 5년 만에 처음이었다. 어미 없이 잘 자라주어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눈물이 왈칵 나왔다. 눈 코 입을 찬찬히 살펴보니 웬지 엄마 없이 자란 아이의 서글픔이 서려있는 듯하여 내 마음이 더 미어졌다. 남편이 가져온 도시락을 같이 먹는 그 짧은 시간이 참 달고 행복했다.

친정엄마도 면회를 오셨었다. 엄마가 사시던 집은 분주소에서 적어도 40리는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남편은 자전거라도 타고 올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여름 땡약벌을 그저 걸어오신 모양이었다. 아마 네다섯 시간은 걸어오셨

을 것이다. 당시는 추수 직전 보릿고개였고, 어머니 당신도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굶어가며 양손에 오이 세 개를 들고 오셨다. 변변한 도시락도 싸 오지 못하고 그나마 가지고 온 오이 세 개를 나에게 내미시는 어머니의 그 양상한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 보안원 앞에서 금방 쓰러질 듯 서 있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초라하고 창피하게 느껴져서 괜히 어머니께 “뭐 하러 이런 걸 가져오냐”라며 큰소리를 쳤다. 그렇지만 막상 감방에 돌아와서는 엄마에게 밍게 군 것이 후회되어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분주소에서는 일어나자마자 노동을 하고 간수가 부르면 조서를 쓰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보통 15일이면 끝나는 초심 과정이 계속 길어지고 있었다. 심문도 심문이지만 구류장에 자리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중이라고 했다. 들어온 것은 여름이었으나 어느덧 가을이 되었고, 나는 내심 초심 단계가 조금 더, 조금만 더 연장되길 바랐다. 심문 과정이 끝나고 구류장으로 이송되기 전에 어떻게든 수를 써서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나의 작은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몇 명의 죄수들은 따로 불려졌고, 나는 구류장으로 이동을 할 채비를 해야만 했다. (계속) 

+ 북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실시



〈지난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이 9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오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신문은 시험사격이 두차례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사진에는 지난달 24일 발사 때와 같은 차륜형 이동식발사대(TEL)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됐다.

앞서 북한은 8월 24일 발사에 대해서도 초대형 방사포라고 명칭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4일과 달리 이번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이 '성

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북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두 발 중 한 발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상의 섬을 목표로 발사한 발사체가 내륙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번 발사가 '성공했다'는 언급이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험사격에는 최근 인민군 총참모장에 임명된 박정천 육군대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김여정 제1부부는 지난달 24일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 트럼프, '대북 강경' 볼턴 안보보좌관 전격 경질



〈9월 10일 전격 경질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9월 10일 전격 경질했다. 지난해 3월 임명된 이래 약 1년 6개월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개인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밤 볼턴 보좌관에게 백악관에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내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볼턴 보좌관이 제시한 많은 정책 제안에 본인도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전격적인 경질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어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며 재차 "그것

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한 뒤 "그것은 우리가 차질을 빚게 했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은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을 말한다. 리비아는 2003년 3월 당시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의사를 밝히고 비핵화를 이행했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은신 도중 사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북한이 극도의 적개심을 보여온 '대북 강경파' 볼턴 전 보좌관을 전날 전격 경질한 데 이어 그가 북한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주창해온 리비아 모델까지 잘못된 정책이라고 부정한 셈이어서 대북 협상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한미 정상회담 실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 여전히 유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북한 비핵화 해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어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어 "(비핵화 관련)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고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해 합의 결과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제재(sanctions)와 행동(actions)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는 행동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어 "내 생각에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북한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행동은 '군사적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외에도) 많은 국가가 단거리 미사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고: 연합뉴스 09.24>

+ 북, 국경지역 출입자 감시 위해 경비초소 증강



〈양강도 혜산시 혜탄동의 인민반 경비초소.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당국이 외지인들의 국경지역 출입 통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경지역 경비초소를 증설하고 기존 감시인원 외에 인민반 주민들을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도록 하여 경비 인원을 증강하는 등 국경지역 출입을 주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경 인근 마을 공공기관과 인민반들에 경비초소를 증강하면서 국경출입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지역내 주민들에 대한 감시의 목적도 있지만 국경에 접근하는 외부인원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경비초소들이 새롭게 증강되었다고 전했다.

증설된 경비초소에는 기존의 감시인력 외에 인민반 주민들을 교대로 24시간 항시적으로 근

무케 하는 한편 공용전화기를 설치해 보위부, 보안부, 소방대, 분주소들과 즉시 연락이 가능하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국경지역 인민반을 중심으로 경비초소를 두고 주민 감시를 진행한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지만 주민의 비협조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이번에 이들 경비초소에 대한 전반적인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새롭게 초소를 증강하는 사업을 올해 초부터 진행해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로 국경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 목적과 방문하려는 세대와의 관계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하는 등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RFA, 09. 10〉

+ 국정원 "평안북도 돼지 전멸...北전역 돼지열병 확산"



〈정보위 전체회의의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은 9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으로 북한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북한이 국제기구에 돼지열병 발병을 신고했고, 그 이후에 방역이 잘 안된 것 같다"며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동방역을 하는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협조가 이뤄지기를 희망

하지만 북한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에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 한번 감염되면 최대 100%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참고: 연합뉴스, 09.24〉

+ SIPRI 소장 "협상 앞둔 北美, 비핵화 명확한 정의부터 해야"



〈주한 스웨덴대사관저에서 열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장 기자간담회'에서 댄 스미스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북한이 내년이면 30~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다. 스웨덴, 스웨리예의 민간 연구소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9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추정치를 공개했다. 이는 SIPRI가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탄두의 수를 20~30개로 추산한 것보다 10개가 늘어난 수치이다.

새년 카일 SIPRI 핵무장군축비확산프로그램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2020년이면 30~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추정치는 불확실성 속에 내놓은 최선의 수치”라고 말했다.

SIPRI는 미북이 향후 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댄 스미스 SIPRI 소장은 비핵화를 정의

하는 문제에 대해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일단 갖고 있다고 보지만 이는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정의하는 것은 세부적이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스미스 소장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북 모두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말고 실무수준에서 성실한 대화를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 속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미북 양자 교류를 지지하거나 미국이 평화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참고: 연합뉴스, 09.16〉

+ 미 인구통계기관 “北 2035년까지 가임여성 40만명 감소

2035년까지 북한의 임신 가능한 나이의 여성 인구가 2018년보다 40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미국의 인구통계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이 지난 3일 공개한 2019 가족계획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구증가국에서 감소국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의 인구조사국 통계에 의하면 2019년 8월 말 현재 북한 인구는 약 2천568만 7천 명으로 1년 전인 2018년의 2천 555만 명보다 약 13만 명 늘었다. 인구조회국은 북한의 인구 증가세는 2030년을 정점으로 둔화된다고 전망했다.

먼저 2018년 현재 임신 가능한 나이의 북한 여성의 수는 660만 명이지만 2035년이 되면 620만 명으로 17%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출산율 역시 인구감소국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조회국의 이번 보고서를 보면 2018년 북한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신생아 수가 1.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체로 출산율이 2.1명 수준은 돼야 적정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인구조회국의 가족계획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결혼한 여성 열 명 중 7명 꼴인 70%가 임신을 조절하는 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여성의 피임 사용율은 약 80% 정도로 나타났다. <참고: RFA, 09.06>



〈북한 여성이 나들이하는 모습(조선신보)〉

+ ‘태풍 13호’ 강타한 북한 지역 침수 및 농작물 피해 발생



〈주민들이 태풍 링링의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풍요한 가을을 앞두고 ‘태풍 13호’ 링링이 북한 곡창 지대를 강타하면서 많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태풍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조직된 국가비상재해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0시를 기해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을 관통한 태풍의 영향으로 북한 지역에서는 200여 동의 집과 460 세대대의 살림집이 침수됐고, 공공건물 15개동이 완전 및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농경지 피해규모도 4만6천정보(약 458km²)로, 농작물이 넘어지거나, 침수 또는 매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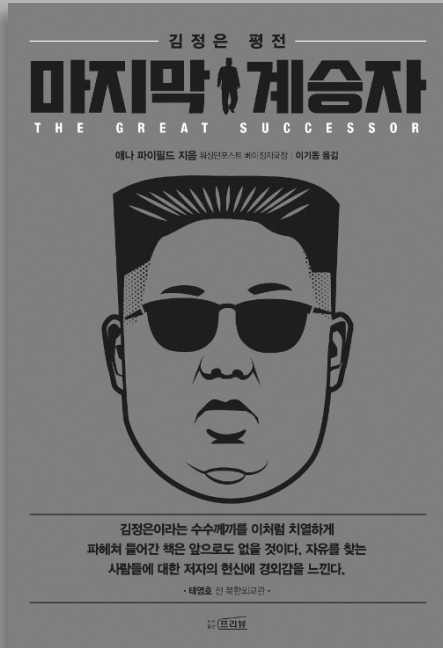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6일 노동당 중앙군

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농업 부문에서 한해동안 애써 가꾼 농작물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보호하여야 한다”며 인민군 무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태풍의 이동경로가 곡창지대를 강타한 만큼 북한이 올해 식량 생산에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9월 19일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통해 올 가을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이 지난 5년보다 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의 강수량이 평균을 밑돌았고, 이 기간동안 관개용수마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북한의 쌀과 옥수수 수확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마지막 계승자

저자: 애나 파이필드

출판사: 도서출판 프리뷰

발행일: 2019년 6월 11일

가격: 20,000원

북한의 권력은 김씨 일가 3대를 따라 세습되고 있다. 김정일의 경우 김일성 사망 수십년 전부터 주요 요직을 거치며 권력을 성공적으로 승계받기 위한 물밑 작업을 착실히 진행했고 김일성 사망 이후에 별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김정일의 집권은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고, 새롭게 권좌에 오른 김정은은 아직 30대 초중반의 나라의 지도자로는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장성택 등 후견인에 의한 통치를 예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은 예상보다 더욱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위협적인 인물들의 숙청을 통해 보여주었다. 한편 이러한 잔혹한 숙청과 함께 미국에서 데니스 로드맨을 초청하여 농구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고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 진솔한 모습을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등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젊은 지도자는 한편으로는 놀라움

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궁금증을 반증이라도 하듯 김정은에 대한 책자들은 서점에 다수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책 ‘마지막 지도자’ 만큼 충실한 자료조사와 취재를 곁들인 김정은에 대한 분석은 찾기 어려운 듯하다.

이 책의 저자 애나 파이필드(Anna Fifield)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부장은 서방 언론인 가운데 북한 정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저자는 10여 차례에 이르는 북한 현지취재와 다양한 자료, 북한주민과 탈북자 등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수수께끼의 지도자 김정은의 알려지지 않은 장막 뒤 이야기에서부터 김정은 시대 변화된 북한의 사회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의 행적을 다루고 김정은의 행동심리를 분석했다. 저자가 그려낸 김정은은 영리하고 잔혹하며, 외교적인 요령까지 터득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권력유지라는 최종 목표에 맞춰져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책은 3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서는 김정은의 어린 시절과 스위스 유학시절을 다루었다. 김씨 일가의 초호화판 사치생활과 어린 김정은의 유별난 성격, 위장신분으로 지낸 유학 시절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2부 권력 다지기에서는 3대 권력 승계 과정과 승계 직후 권력을 다지기까지의 공포정치와 장마당 정책, 이복형 김정남 암살과 고모부 장성택 처리과정의 알려지지 않은 내막이 공개된다. 천안함 폭침도 권력 승계 과정에서 군부

의 지지를 얻기 위해 김정은이 총지휘한 것으로 책은 밝히고 있다. 3부에서는 내부 권력 장악 이후 한국을 상대로 한 평화공세와 미국과의 담판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저자가 약 8개국을 돌아다니며 수백 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김정은은 비록 선대와는 다르게 좀 더 개방적이고 현실적이며 진솔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선인(善人)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매우 잔인하고 냉혹하며 철저하게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저자는 취재 결과가 아직 북한 땅에 갇혀 있는 2500만 명의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스위스에서 김정은과 함께 수학했던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인상깊었다. 가장 가까이에서 김정은의 인간적인 면모, 특히 어린 시절의 모습을 관찰했던 사람들의 증언 내용은 웬지 인간 김정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듯한 느낌마저 들게 했다. 또한 새로 밝혀낸 김정은 일가의 여러 비사도 흥미로웠다.

북한 현지 인터뷰를 포함한 방대한 인터뷰와 자료조사, 그리고 상당한 필력을 통해 김정은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한 이 책은 아마 북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일 것이다. 북한 이해를 위해서는 지도자에 대한 공부도 꼭 필요한 만큼 일독을 권해본다.

북한 기도 제목

1. 북한의 악화되는 경제속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은 부자나 고위층이 아닌 일반 서민이나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추수를 앞두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수준의 식량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올해 작황 및 식량 생산량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권의 핵개발로 인한 제재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도록 기도합니다. 긴급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영육간의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역의 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2.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각한 박해 가운데 경제난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성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남은자로서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성도들은 고난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본 선교회에서는 절실한 영육간의 필요를 지원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지원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북한의 인권 탄압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적인 통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감시와 통제, 특히 심각한 기독교 박해를 자행하는 북한이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아야 합니다. 박해로 순교한 이들, 또 산간오지 및 탄광 등에 추방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수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성도들 및 그 후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 중단되고,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을 둘러싼 외교의 방향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는 북한의 핵문제를 중심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계속해서 발사체 실험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북한 핵이 확실한 폐기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가 외교 무대에서도 다루어지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기도합니다.
5.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전 탈북 모자가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에서 굶주림 가운데 숨을 거둔 일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적절한 지원과 복지가 지원되지 못하는데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탈북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통일의 마중물이라 외쳤지만 무관심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통일과 북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의 영혼들을 섬기고 통일을 앞장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중 관계 개선 국면 속에서 중국 내에 탈북자 색출 및 체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자나 관련 활동가들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파괴하려는 북한 당국의 활동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이 훈련된 요원이 아닌 중국을 방문하는 일반 친척방문자에게도 성경공부를 시키는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을 비롯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계속된 어려움을 창의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7.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 라디오 사역 등을 통해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와 주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한 음질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8. 10월 둘째주에 열릴 머스카슬론 (Muskathlon) 한국 행사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머스카슬론은 전세계에서 한반도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 DMZ 인근에서 체육행사와 함께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갖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한반도 땅과는 어떤 혈연도, 인연도 없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이번 일이 전 세계에 성도들에게 북한과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에 기름을 붓는 귀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외국의 성도들의 헌신이 한국 교회에도 좋은 자극이 되어서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과 통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안전한 가운데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또한 이 행사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9년 10월 1일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자: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 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19년 10월 9-10일(1박 2일) 장 소: 경기도 연천 고대산캠핑장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 산악 하이킹 63km / 산악 자전거 120km

참가비: +20만원(체류비용 + 선교환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79명(확정) + 국내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2019 머스카슬론 대회 일정

1. 입소 및 스포츠 진행 시간

종목 참가자	입소 시간	각 종목 출발 시간
하이킹 63Km	9일(수) 오후 5시	9일(수) 자정 12시
산악자전거 120Km	9일(수) 오후 5시	10일(목) 오전 5시
마라톤 42Km	9일(수) 오후 5시	10일(목) 오전 5시
마라톤 21Km	9일(수) 오후 5시	10일(목) 오전 8시
마라톤 10Km	9일(수) 오후 5시 (10일 8시까지 가능)	10일(목) 오전 9시

2. 캠핑장 일정

일정	시간	기타
식사	9일(수) 오후 5시	참가자, 자원봉사자 식사
오리엔테이션	9일(수) 오후 7시	1시간 예상
식사	9일(수) 오후 11시	하이킹, 자원봉사 참가자
식사	10일(목) 오전 4시	마라톤, 산악자전거, 자원봉사 참가자
스포츠 피날레	10일(목) 12시-오후 2시	참석자 전원
저녁 식사	10일(목) 오후 5시	참석자 전원
해산	저녁 식사 후 해산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예외 가능)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